

2021 제2차 정기이사회

회 의 록

「충남연구원」 2021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 회 의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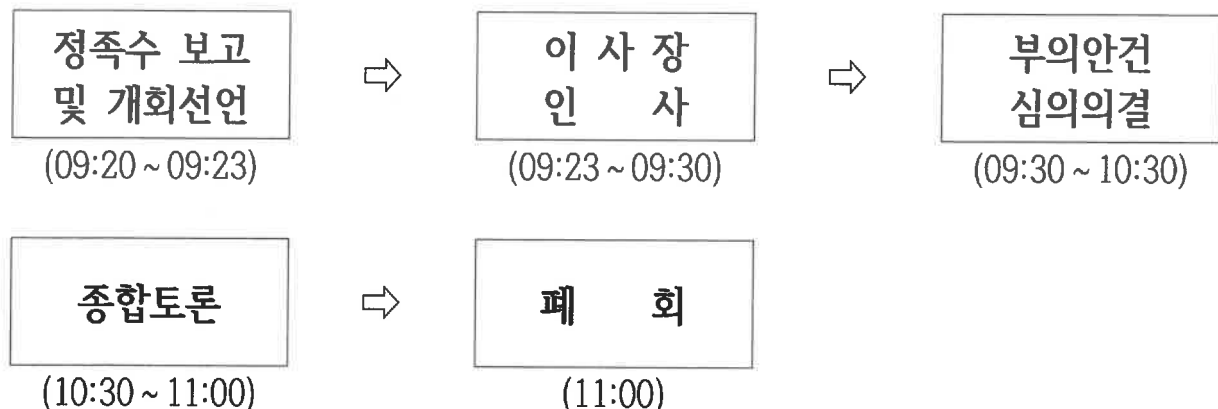
1. 일 시 : 2021. 12. 23(목), 09:20 ~ 11:00
2. 장 소 : 충남도청 5층 502호(상황실)
3. 참 석 : 총 14명(이사 13, 감사 1)
 - 불 참(6명) : 김황배 이사, 송준호 이사, 이수훈 이사, 정세은 이사, 홍성주 이사, 하승수 감사

4. 부의안건

□ 의결안건

- 제1항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 제2항 2022년 사업계획(안)
- 제3항 2022년 예산(안)
- 제4항 직제규정 개정(안)

5. 진행흐름



□ 회 의 결 과

□ 개 회(간사)

[국민의례, 성원보고]

□ 개회선언(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인사

-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연구원 이사장 양승조입니다. 충남연구원 제2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말 오랜만에 우리 유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이사님과 감사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 충남연구원은 도정의 씽크탱크입니다. 충남과 도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이 그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는 점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연구원 내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부적절한 사건들로 인해 도민의 기대에 일정 부분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이러한 실망과 우려를 단호하게 불식시켜야 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220만 도민만을 바라보고 충남 도정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저는 우리 유동훈 원장님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이 다시금 충남의 미래를 향해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임직원분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존경하는 이사님과 감사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 2022년, 충남 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위기와 기회에 직면해있습니다. 긴 터널 속 어둠과 같은 코로나 장기화를 진정시켜야 하고,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켜야 합니다.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전략발굴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보령 해저터널, 충남 서산공항,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연계한 서해안 통합 개발전략을 수립하며, 여기에 물류 중심의 도심항공교통산업 테스트베드를 유치하여 대한민국 서해안안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전략을 마련하고, 충남의 북부권과 남부권의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한 밀도 있는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미 지난달 충남연구원은 道와 함께 제20대 대선공약을 발굴하였습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 도정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전략화시켜 국가시책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충남 도정과 충남연구원은 2인 3각 달리기처럼 서로 더욱 밀접한 협력관계를 다지고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며 오로지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부처와 대학에서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신 유동훈 원장님을 모셔온 만큼, 우리 충남연구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존경하는 이사님과 감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오늘 논의될 충남연구원의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에는 충남 도정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충남 주요 현안들의 국가정책화,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미래예측과 핵심과제 연구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보내주시는 만큼 우리 충남 도정의 앞날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도에서도 충남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 제가 도정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고 충남연구원에도 이런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먼저 늘상 인사말에도 들어있지만, 대한민국에 직면한 이런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들, 정말 국가 인구소멸이라고 하는 저출산 문제, 또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 또 이제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 문제, 여기에 미래 발전 전략을 잘 수립하지 않으면 현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외 위상도 정말 크게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충남 도정에서도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정말 도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충남연구원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정의 국장님들이 임기가 대략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무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은 주어진 정책을 실행하는 게 주 업무인데 정책을 발굴하고 정말 심각한 이런 대한민국 3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또 인구소멸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 충남연구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여러 가지 주어지는 연구 용역 개발, 주어진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연구원이 아니어도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충남에서 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도정에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뭐를 좀 연구해 달라, 그런 연구에 대한 요청을 받는 게 연구 용역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사실 충남연구원의 기능이 100% 발휘 된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연구 용역이 아니라도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3대 위기에 대해서 정말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 유동훈 원장님도 우리 이사님과 처음 인사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원 장>

-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이사회에 함께 하여 주신 양승조 이사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우리 충남연구원의 이사님, 감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제가 취임한 지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사실 진작에 인사를 올렸어

야 하는데, 늦은 인사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년도 충남연구원은 코로나 19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그리고 민선 7기 도정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런 연구 활동의 이면에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님 그리고 감사님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오늘 이사회에서 제기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해 업무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하고 연구원이 좀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안건에는 우리 연구원의 내년도 업무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원장으로서 연구원 운영 및 업무 방향을 간략하게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성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첫 번째는 충남연구원이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를 통해 미리 미래를 대비하고 선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3대 위기, 지속 가능한 충남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둘째 충남의 가치체계 정립 및 충남의 가치 확산입니다. 민선 7기 도정은 무료 정책, 더 행복한 주택, 생애주기별 무상 교육 완성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남의 노력에 대한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충남의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뒷받침 연구를 해 나고자 합니다.

- 셋째는 도민과 소통하는 연구수행체계 구축입니다. 연구 결과물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신뢰, 공정, 개방, 투명의 가치를 우리 조직에 심어 나가겠습니다. 화합의 바탕 위에서 성과를 내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 이러한 방향성에서 충남 도정과의 긴밀한 협력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정책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우리 연구원의 첫 번째 정책 고객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도의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앞으로 도정에 열심히 조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간의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저를 비롯한 충남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앞에서 더 행복한 충남을 이끄는 도민의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양망합니다. 귀한 자리해주신 양승조 이사장님, 이사님, 감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 사>

- 그리고 오늘 우리 연구원 노동자 이사인 임재영 선임연구위원이 처음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사장님은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서 바로 이석하셔야 합니다.

<이 사 장>

- 잠깐만 임재영 이사님 한번 인사 말씀하시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도시 산학연에서 노동자이사제를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산하기관에서 노동자이사제가 거의 완성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사분이 임재영 이사님이신데, 임재영 이사님 노동자이사로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재영 이사>

- 처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남연구원 노동자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 임재영인데요, 참으로 영광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 배석했다는 참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막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우리 충남연구원 이사회 여기 구성원들 같이 계신분들은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맡은 바 그 임무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 사>

-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에 다시 이사회를 이어가겠습니다.
- 충남연구원 정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님께서 “김영만” 이사님을 회의주재 이사로 지정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김영만 이사님께서 이사장님을 대행하여 이번 이사회를 주재하시게 되었습

니다. 김영만 이사님께서서는 이사장 좌석으로 앉으셔서 이사회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이사 이사장 석으로 이동]

<의 장>

- 굉장히 부족하지만 지사님으로부터 지목을 당한 충남정책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안건 심의의결

<의 장>

- 우선 기명 이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서 먼저 회의록 기명 이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이사님들께서 수고해주실 두 분을, 두 분의 이사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이사>

- 오늘 새로 이사로 선임되어 참석하신 임재영 이사님, 한번 경험하시죠?

<의 장>

- 여성 이사이신 류주현 교수님 추천하겠습니다.

<류주현 이사>

-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의 장>

- 그러면 임재영 이사님과 류주현 이사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그러면 임재영 이사님과 류주현 이사님께서서는 회의록 정리에 수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부의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 순서입니다. 다음은 간사가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할 부의안건을 보고하겠습니다. 간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오늘 심의의결 하실 안건은

□ 의결안건으로

- 제1항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 제2항 2022년 사업계획(안)
- 제3항 2022년 예산(안)
- 제4항 직제규정 개정(안)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의 장>

- 오늘 이사회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직제규정 개정(안)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부의된 안건 중 심의 안건을 유사 안건별로 묶어서 일괄 상정 후에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 전원>

- 네, 없습니다.

<의 장>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부의된 안건 중에서 유사 안건별로 묶어서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사님께서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주현 이사>

- 저 하나 여쭙봐도 될까요? 이게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된 거랑 취소된 거

는 굉장히 큰 차이여서, 연기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취소한 것들 굵직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 사>

○ 축소 사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6차산업 제품 활성화 지원 사업과 농촌 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사업의 도비 보조금 감액에 주요합니다.

<류주현 이사>

○ 끝인가요?

<간 사>

○ 네, 그렇습니다.

<류주현 이사>

○ 이게 도비 보조금 감액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안될까요?

<원 장>

○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항상 예산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이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 성과가 조금 이렇게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축소하거나 다른 쪽으로 사업의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류주현 이사>

- 알겠습니다.

<의 장>

- 네, 답변 되셨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 전원>

- 네,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호 이사>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미래기획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간 사>

- 네. 그렇습니다.

<지진호 이사>

- 기존에 충남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사업발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국단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지금 제출한 상태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흡수를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한다면 굉장히 아마 도정 정책 개발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자료를 요청하면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 사>

- 이사님 말씀대로 자료를 받아서 연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저도 아울러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많은 고민을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고 주문한 부분도 여기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그 다음에 제가 좀 아쉬운 게 충남도에는 전국 유일의 문화부지사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성과를 꼭 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산하기관인 충남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또 마침 우리 새로 오신 원장님도 그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가이신데 지금 보면 문화관광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라든지 방향성은 여기에서 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한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산도 충분히 반영된 것도 없고 예산보다는 어떤 아젠다라든지 정책 발굴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연구원에서 좀 어떤 그 생각이 있어서 뻔 건지 아니면 향후에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 장>

-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상 연구원에 와서 이렇게 연구 분야를 좀 살펴보니 사실 이사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 분야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 이런 쪽에 내년도 업무 영역에서 소홀히 할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좀 큰 방향성 중심으로 언급을 드리다 보니까 세세하게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 60페이지에 이제 조금 언급되어 있는 게 서해안권 글로벌화 방안이 주로 이렇게 포커싱이 관광이나 글로벌 관광특화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상을 담고 있고요. 국제 메가 이벤트도 조금 관광 쪽하고 조금 연이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이게 이제 저희가 생

각하는 게 충남도의 어떤 큰 가치가 복지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복지수도의 완성은 최종 완성은 문화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도 그 세부 계획에서 충분히 그런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은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부지사 제도까지 도지사님이 만들었는데 최소한 연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라든지 내지는 비중 있게 좀 다뤄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센터도 지금 6개 센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왜 이 센터나 이런 부분만 있어야되는지,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이게 축소해도 되는 건지, 확대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장>

- 네.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사님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화관광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어텐션을 가지고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센터 관련해서는 센터는 이게 저희 연구원의 부설센터로 있습니다마는 도의 사업 부서에서 연구보다는 이제 사업 목적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이렇게 이제 위탁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고요.

- 지금 지속 가능한 충남에서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 내부에 연구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쪽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음 이사회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네, 감사합니다.

<김수민 이사>

- 우선 새로운 원장님이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제 충남연구원도 또 일결 일심해서 매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51페이지에 연구부문 업무추진, 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있어서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를 연구 수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도정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는지 궁금하고요.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연구가 되는가 하는 점, 그리고 아까도 또 도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3대 위기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연구 대응이 22년도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저도 궁금하고요.
- 그다음에 이제 연구 질적 제고를 했다. 연구과제 수준을 제고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 사>

- 네, 이사님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도정 3대 위기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에 대응하는 저희 연구원 내부적인 전략과제와 또 도와 계약을 통한 수탁과제, 현안과제, 연구조성 사업 등과 같은 다각적인 연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 그중에서 특별하게 충청남도의 지금 더 행복한 주택 모델은 사실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는 형태에서 공공 자본이 투입돼서 보강하는 방식이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모델로 역제안된 상태이고 차기 정부의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충청남도 지역 공약으로 함으로써 더 행복한 주택이 전국으로 사회화되고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양극화 문제는 이사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양극화에 국한하는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다양한 제반 측면에서의 양극화 문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소득의 역외 유출과 관련된 충남연구원 자체 전략과제를 비롯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면 차년도에는 저희 연구원이 다음 달 초에 2022년 연구 아젠다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칠 예정입니다. 2022년 연구 아젠다 속에 이 양극화 주제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창출해서 다음 이사회 때는 중간 성과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이사>

- 먼저 원장으로 취임하신 유동훈 원장님 환영드리고요. 아마 지난주에 연구원 인사가 있던걸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동안 연구원 내에 갈등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올해 아마 내년까지도 이끌어가신 보직자들을 임명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 사>

-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획경영연구실장으로 발령난 오용준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 충남연구원은 4개 연구실과 1개 정책사업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연구실 고승희 박사님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 김경태 박사님,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조영재 박사님, 공간환경연구실장 정옥식 박사님, 정책사업지원단장 박근오 박사입니다.
- 저희 연구원 원장 직속 기관으로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와 인권경영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투자관리센터장님은 안 오셨고요, 인권경영센터장으로 강마야 박사님 오셨습니다.
- 이상으로 충남연구원의 보직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이사>

- 원장님을 도우셔서 이렇게 연구원을 잘 내실있게 이렇게 운영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하신 예산이나 또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예전에 추진해오시던 연구원 이전 문제는 마무리 중단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된 건가요? 작년에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 장>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자체는 저희 부설센터가 100%로 이전되는 쪽으로 완료가 되었고 본원은 이렇게 이제 공주시에 그대로 있는 쪽으로 일단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반면에 이제 우리 충남연구원은 사무실 사무 환경이 너무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안전문제 이런 등등이 좀 있어서 공간 구조 환경 개선 작업을 지난해 준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절차적으로 좀 보완도 하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예정되는 그 예산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쪽으로 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재영 이사>

-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하고 결산 관련해서 지금 장관항목에서 특히 뒷부분에 관항목에서 수익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결국 이제 잉여금 이익에 대한 부분들 때문인데요. 작년에 우리 연구원 순세계잉여금

에 대한 용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언급된 적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라고 표현된 부분들 대부분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수입. 근데 지금 수입의 개념으로 계속 살아나면서 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잉여금이 지금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좀 이제 재무 관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는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 결론적으로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적게 나온다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계속 주시를 하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적인 어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 장>

- 이사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회계상에 쓰는 용어 뿐만이 아니라 관리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들이 혼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 아까 지적하신 수익과 수입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조금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게 상당히 결산할 때 이렇게 하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조금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한 지금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있고 좀 명확하게 그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충남도 23개 산하 기관의 선임연구기관이거든요. 대표가 되는 기관인데 앞으로 도하고 소통이라든가 모범적인 운영을 하셔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체적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특별하게 좀 생각하시는 방향 설정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원 장>

- 아까 이제 인사 말씀 올릴 때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미래 예측, 두 번째는 충남의 가치를 확산하는 거, 세 번째는 이렇게 도민과 소통하는 연구 체계 확립 세 번째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도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도정의 성공을 뒷받침하지 않고는 도민의 행복을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이뤄낼 방법이 없다. 도정의 성공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도정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의 1차 목표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긴밀한 협조 관계는 연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 그래서 우리 연구원을 담당하는 팀장님 또 우리 국장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까지 필요한 회의가 있으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내년도에는 좀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도의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 장>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주현 이사>

- 방금 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부탁드립니다. 시군별 전담팀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도 그때도 제가 꼭 부탁드렸던 게 전담시군별 회의 모임이나 이게 뭘 이름으로 되든지 간에 정례화를 꼭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례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제 정기적으로, 근무 시간에 들어간다는지 그리고 내부적인 전담팀의 정례적인 것도 하고 도하교의 그 해당 전담하는 하부의 정례적인 것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안건이 없더라도 정해야 할 모임 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장님이 체크해 주신다면 참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 장>

- 관련해서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도 내부에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가 연구실이 대실제로 되어있는데 이 대실제가 이제 다양한 연구 영역이 함께 있다보니까 융복합 연구에는 장점이 있지만, 도에 이렇게 직접 사업 부서와의 소통이 조금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있어서 소규모의 팀제도도 조금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겠냐는 내부 논의가 있고,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사업국과 우리 연구팀 간의 소통 활성화 당연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 또 하나는 시군과도 정책협력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정기적인 채널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좀 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 장>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연구원 규정 개정사항입니다. 의사결정 제4항 직제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 이사>

-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이선영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이게 지금 이 발언한, 발췌된 내용이 전부인 겁니까?

<원 장>

- 저희 인권경영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전부라고 보여집니다.

<정연기 이사>

- 이선영 의원의 발언의 내용은 어쨌든 인권기관하고 감사기관이 역할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 이유 말고?

<원 장>

-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인권과 관련된 기관들의 어떤 체계를 보면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과 국가인권위가 분리되어 있고, 도의 경우에도 이제 도 감사위원회와 도 인권센터가 분리되어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 이게 공권력 행사라든지 조사·감사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의 지위는 분리돼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 둘째는 사실은 저희가 지난 인권경영센터에서 내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운영해 본 결과 여기 이제 이선영 의원님도 지적이 있었습시다마는 오히려 좀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정연기 이사>

- 그러면 지금 그 감사 기능을 누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원 장>

-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이 있었고 또 저희 이사회에 감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라는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보고체계는 저희 이사회 감사님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고 만약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기 이사>

- 인권경영센터는 연구원에서 비교적 외부기관에 가까운것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원 장>

- 인권경영센터도 사실은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된 업무가 내부의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고충 처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런 부분에 좀 소양이 있는 분이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우리 강마야 박사님을 선임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우리 고충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정연기 이사>

-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직제 규정을 개편하게 되면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만 없애는 꼴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 특히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기관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좀 마땅치 않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시기관이 많이 있는 것이

더 통제에 적절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처럼 직제 개편을 통해서 감사업무만 쏙 빠져서 없어지게 되면 감사원에 있는 사람들이야 편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 수단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다른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직제를 효율적인 그런 직제나 기관을 만들어놓지 않고 이것만 그대로 빼게 되면 앞으로 누가 이거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효율적인 감사기관이라든지 효율적인 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국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원 장>

- 이사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내부 감사의 어떤 기능을 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내부 통제 기능을 이렇게 약화시키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내부 감사 기능이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컸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고 저희 지금 현재 외부 통제 장치는 저희가 도 감사위원회라든지 그 도 인권센터라든지 충분한 저희들의 어떤 관할 속에서 지금 통제를 받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감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어떤 체제를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우리 하부의 어떤 관리 기능으로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상설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우리 이사회 이사님께 보고하는 절차를 이렇게 한번 논의를 했고 그런 안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기 이사>

-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인 이런 불편함, 부작용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입장이겠지만, 우리 외부에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불편함이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의 고유 기능이 아닐까. 뭔가 나의 행동이 좀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하고 지금 이제 이걸 없애버리면 지금 도에서 있는 일반적인 감사위원회 라든지 감사기구의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부작용이나 불편함은 적어지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통제수단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든 좀 이사회에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좀 나중이라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 장>

- 감사 기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감사 기능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추진 체계에 관련해서 논의를 조금 하고 있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확정 지을 것은 우리 감사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불편한, 저는 이제 기관장 입장에서는 더욱 이제 내부 감사나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보다는 사실은 그동안에 좀 부작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체제를 좀 바꾸고 새로운 체제하에서 내부 감사 기능을 통하되 주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우리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찬 이사>

- 저도 정연기 이사님이 어떤 감사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저희 대학의 경우를 보면 인권경영 분야하고 감사 기능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권경영에서 어떤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거 하고 또 감사 기능을 어떤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조직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이렇게 조직을 갖고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대학의 용어를 보면, 제가 학장을 하면서도 보면 양 기관이 서로 의견이 상충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 같이 해결되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 상태를 봤을 때 그 기능을 같은 조직이 갖는 것보다는 분리를 하되 감사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큰 조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효율적인 방법, 아까 말씀하신 감사위원회 기능 그것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원 장>

- 이사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다음에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민 이사>

- 여기에 또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고 됐죠? 물론 이제 원장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원장이 꼭 요청해야 할 사항들이 수없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 이것이 이제 정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이게

이제 단지 그냥 원장의 갑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제거하는 건지, 없애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원 장>

- 제가 이제 전 규정들과 이렇게 조금 추이를 비교해보면 내부 감사 기능이 들어가면서 그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구성원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원장님의 어떤 요청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지금 인권 침해라는 것은 절차상으로 볼 때 피해자가 이렇게 이제 우리 인권센터에 이렇게 이제 좀 상담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요청하거나 하면 독립된 조사 과정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의 어떤 요청이라는 규정이 꼭 없어도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임재영 이사>

-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식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기존에 인권경영센터 운영 전에 고충처리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됐었고요. 이런 두 제도 전에도 이제 내부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기능들이 작동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기능만 살려놓고서 이 부분들이 기록되고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더 오히려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 지금 우리 지난 전임 원장 재임 시절에 인사 기록 카드 문제가 지금 작성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시정 여부가 바로 이 인권의 어떤 침해 문제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통한 어떤 자정 기능을 좀 이렇게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안 되고 부작용 때문에 이 기능을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추후에 다시 논의해서 이제 결정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구의 문제보다도 이런 조사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 장>

- 좀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정연기 이사님께서 원하시면 의결방법을 투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님께서 수긍하시면 일괄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연기 이사>

- 네,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 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직제규정 개정(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충남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일 이사>

- 원장님, 이제 3개월 정도 진행하시고 너무 고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향후 조금 어떤 진행 방식이나 아니면 운영 방식의 변화를 분명히 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이런 겁니다. 뭔가 평가와 시작을 할 때는 이사회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대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소통도 아니고 보고나 평가도 아니고 대화 수준의 이사회 시간도 부족하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거창하게 소통 뭐 이렇게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변화를 주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닌데 작년도 사업에 대한 대략의 어떤 전문가 평가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논의하고 이런 지금 방법론이 끝났습니다만 직제규정이나 이런 명제들은 충분히 토론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판단에 여러 가지 오류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누가 또 시간이 쫓기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쫓겨서 결정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난 이사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일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굉장히 소통에 남다른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장>

-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이사님들께도 한 번씩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변명 같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뒤늦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내년도에 이제 가급적이면 코로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좀 소규모 이렇게 모임이라도 좀 이렇게 몇 분으로 나눠서라도 해서 연구원에 돌아가는 과정이나 또 건의드릴 상황 이런 것을 좀 미리미리 조금 소통하면서 의견을 좀 나누는 그런 그 기회를 많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이정일 이사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예정된 시간이 11시 반으로 돼 있는데 이걸 진행이 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관계로 11시 전에 끝나도록 그렇게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사님들 자유로운 발언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충남연구원은 보니까 시군 정책협력을 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마침 관계되는 금산 부군수님도 오셨고 천안에 시장님 자리에서 또 담당 팀장님도 오셨는데 과연 충남연구원이 협력하는 시·군하고 어떻게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특히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장 분들하고 원장님하고 좀 아까 우리 이사님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는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시군 관련해서도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원장님이 자치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관계되신 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 좀 공식화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좀 바쁘셔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충남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만 충남연구원의 연구의 굉장히 강한 강점이 있는 게 뭔가 하는 부분을 메인으로 하나 설정을 해서 여러 연구 중에서 좀 부각이 돼서 그걸 통해서 충남연구원의 어떤 브랜드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말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충남의 전략적 여러 가지 부분을 충남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남연구원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연구원이니까 연구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해서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막 홍보하고 광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어필해서 중요한 게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핵심 모델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부분으로 어필을 하게 되면 조금 충남연구원이 우리 왜 저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냐 이런 부분보다는 ‘아, 충남연구원이 굉장히 역동성과 충남의 미래 어떤 전략을 연구하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장>

- 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충남연구원이 마땅한 이렇게 부각되는 브랜드나 이미지가 조금 적립이 안 되어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힘을 모아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런 이미지를 구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이제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쓰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던 부분은 스스로 빛나지 않더라도 도정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걸로써 뜻깊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현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공부한다기보다는 도정의 정책이나 우리 연구 결과물이 도민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정체성이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군 협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단체장님들 많이들 바쁘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박사님들 세 분이 각 시군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이제 행사에 참석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부단체장님들하고라도 조금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공투센터에서 이제 투자 타당성 검토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또 그 외에도 정책과제를 저희가 이제 출연금 범위 내에서 해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조금 이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시군으로부터 조금 더 이제 출연금을 조금 더 조금 높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부군수>

-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산군 부군수입니다. 오늘 군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사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충남연구원은 충남의 유일한 그 공공기관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충청남도 가운데 자리매김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실적도 있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시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조그만 내부적인 이런 것은 저 지금 이사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내부적, 외부적 소통을 거쳐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제가 도에 한 30년 있다가 시군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사실 도에 있을 때는 우리 연구원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시군 직원이 되다보니까 우리 이제 연구원에 이인배 박사님이 금산군에 자주 오시고 오시고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 저는 도에 오래 있어가지고 전부 다 소통이 되고 이해도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라고 할까요. 실무진들은 크게 이렇게 자주 소통하고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우리 박정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군하고의 소통의 기회 이런 것도 좀 충남연구원에서 꼭 좀 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기를 잘 만들었으면 바람입니다.
-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그런 정책적인 것, 우리가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좀 우리 충청남도하고 함께 연구원이 충청남도의 시책이 정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더욱 충남연구원이 발전하고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이사님들 우리 연구원장님과 함께 협력하셔서 앞으로 충분히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이사>

- 오늘 이제 제가 이사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지금 도청에 와서 이사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거창하게 하고 왔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좀 충남도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랬으면 좋겠는거죠. 이창규 실장님 앉아 계시다가 떠나시고 바쁘신 거 같습니다.
- 어쨌든 간에 사실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이사회를 하는 게 충남 연구원에서는 하는 이사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이사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도 관계자들이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지 얘기를 듣고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종찬 이사>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연구실적을 보면요. 목록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원 당 연구하는 결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연구원 시도 연구원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과중한 건 없는지, 또는 양보다는 그 질을 추구해야 하는 점도 있을텐데 그런 점에서는 연구의 어떤 질적 방향 그리고 양 이거를 조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

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원 운영에 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소희 팀장>

- 안녕하세요. 천안시청 정책개발팀장 손소희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긴급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 제가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자리에 계셔서 연구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군에서는 항상 이런 지방연구원, 해외나 다른 지자체는 정책 변화나 이런 거에 쉽게 다가가 지지는 않는데, 항상 문이 열려 있는 연구원 측에 제가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반증이요, 지난번 탄소 중립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그 주제를 회의 주제나 토론 준비를 할 때 연구원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또 연구원장님도 참석을 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 정말 약간 큰 변화에 먼저 선구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게 됐습니다.
- 그리고 다른 이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 날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의 장>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수민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정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 지사님하고 이사님들하고 토론회든 간담회든 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사님을 보좌하는 정책특보단장으로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시면 아직 2분 남았으니까요.

○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폐 회

<의 장>

○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된 충남연구원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충남연구원이 본래 연구원의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충남 도정의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사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모쪼록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댁내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자, 그럼 폐회선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감사합니다.

□ 의 결 내 용

1.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① 추 경 사 유(일반회계)

① 수입 부문

- 사업운영 수익 증액(444백만원)
- 대행사업(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검토 사업) 수익 증액(230백만원)
- 이자수익 증액(23백만원)

② 지출 부문

- 연구사업비 증액(672백만원)
- 경영관리비 증액(25백만원)

② 추 경 예 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종	기 정	추 경	사 유
합 계		12,787	12,090	697	
일반 회계	수 입	12,787	12,090	6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수익 444 • 대행사업수익 230 • 이자수익 23
	지 출	12,787	12,090	6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비 672 • 경영관리비 25

③ 추 경 사 유(특별회계)

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감액 : △1,500백만원)

- 수입부문
 - 도비보조금 수익 감액(△1,500백만원)
- 지출부문
 - 연구사업비 감액(△1,500백만원)

② 물환경연구센터(증액 : 500백만원)

- 수입부문
 - 사업운영수익 증액(500백만원)
- 지출부문
 - 연구사업비 증액(515백만원)
 - 예비비 감액(△15백만원)

③ 충남농업6차산업센터(감액 : △860백만원)

- 수입부문
 - 도비보조금 감액(△860백만원)
- 지출부문
 - 연구사업비 감액(△860백만원)

④ 경제동향분석센터(증액 : 8백만원)

- 수입부문
 - 유보자금 증액(8백만원)
- 지출부문
 - 예비비 증액(8백만원)

⑤ 충남경제교육센터(감액 : △11백만원)

- 수입부문
 - 국비보조금 감액(△10백만원)
 - 유보자금 감액(△1백만원)
- 지출부문
 - 연구사업비 감액(△7백만원)
 - 예비비 감액(△4백만원)

⑥ 재난안전연구센터(증액 : 31백만원)

- 수입부문
 - 사업운영수익 증액(28백만원)
 - 보조금 수익 증액 (3백만원)
- 지출부문
 - 연구사업비 증액(31백만원)

⑦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증액 : 1.1백만원)

- 수입부문
 - 예금이자수익 감액(△0.7백만원)
 - 유보자금 증액(1.8백만원)
- 지출부문
 - 예비비 증액(1.1백만원)

4 추 경 예 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종	기 정	추 경	사 유
합 계		10,918	12,750	△1,832	
특별 회계	수 입	10,918	12,750	△1,832	• 사업운영수익 528 • 순세계잉여금 9 • 보조금수입 △2,367 • 기타영업외수입 △2
	지 출	10,918	12,750	△1,832	• 연구사업비 △1,822 • 예비비 △10

2. 2022년 사업계획

□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연구부문]

① 도정 3대 위기에 대응한 다각적 연구수행

- (저출생·고령화 대응) 저출생·고령화,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충남의 당면 현안에 대한 연구수행 및 지원
- (사회적 양극화 대응) 도 지역균형 및 취약지역 개선을 통한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수행 및 지원

② 충남의 미래정책 선도연구

- (충남, 충청권 상생발전 모색) 충청권 상생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대선 공약화 추진
- (핵심 미래 전략 마련) 도정의 중장기 미래 발전을 선도할 분야별 발전전략 구상 및 과제 발굴 연구수행 및 지원
- (기후변화 등 환경 대응) 충남의 환경 현안에 대응한 변화 예측을 통한 정부 정책 역제안 및 담론 형성

③ 도의회, 도민, 시·군과 함께하는 현장밀착형 연구

- (도 의정 현안지원) 도의회 중심의 지역 주요 현안 및 지역 미래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세미나 등 다각적 의정활동 지원
- (코로나 대응 현장기획연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현안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전담인력 활용 시·군별 맞춤형 지원) 시·군별 전담인력 배정·활용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해소 및 특화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지원

④ 국책연구기관 및 도내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국책연구기관 협업체계 구축) 중앙정부 및 국책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및 협업을 통한 충남, 충청권 발전방안에 대한 담론 형성
- (도내 유관기관과 상생협력) 충남 주요현안에 대해 도 유관기관과 공동연구 및 대응방안 모색

⑤ 연구 및 컨설팅을 통한 국비확보

- (공모선정 지원)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적극적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사업의 국가공모사업 선정 및 시범사업 반영 등 국비확보 지원
- (공공투자사업 성과 확대) 국가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도 및 시·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전략적 대응을 위한 연구수행 및 지원

[연구지원 부문]

①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

- 도정 현안 반영 및 정책활용도 중심의 연구과제 발굴
- 수요자 중심의 정책 활용도 점검 체계 강화

② 체계적인 연구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연구과제 성과물 공개 및 대외적 활용도 제고
- 연구원 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③ 통합적 정책사업 지원·관리

- 자립적 정책사업지원단 운영 및 지원
- 도 기획관실 및 해당 실·국 간 협력체계 구축

④ 센터별 2021 주요 사업 실적

센터	주요사업 실적과 성과
충남기후 변화대응 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지원 강화 • 충청남도 푸른하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연안환경,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전 관리 정책연구 지원 • 도민 대상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교육(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지원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 28~30호 발간 •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안정화, 정부·충남도 환경정책 연계지원
충남 물환경 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교천·도고천 수질개선을 위한 통합집중형 사업 추진 지원 • 충청남도 금강수계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환경부, 6월) • 물관리 정보자료 구축 및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하천 수질측정망 조사점 확대(163개소 → 187개소)
충남공공 디자인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경관협정 추진모델 개발 •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방안 •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디자인 전문저널『디자인충남』12호 발간

센터	주요사업 실적과 성과
충남 경제동향 분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 • 경제산업대책본부회의 • 충남경제위기대응매뉴얼 교육 • 코로나19 대응관련 최근 이슈분석 및 수시보고 • 충남형 패널조사 및 월간 충남경제 발간
충남경제 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경제적 사고함양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195회, 4000명 교육실시) •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경제교육(174회, 3610명 교육실시)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반인 맞춤형 경제교육 추진(25회, 700명 교육실시)
충남 농업6차산 업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누계) : '18년 151개소 → '21년 217개소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신규 3회, 갱신 4회)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 총 309건 •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안테나숍 5개소, 제품판매장 12개소 운영)
충남 재난안전 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 충남 재난안전 데이터 생산을 위한 통계 집적화 •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대책 방안
충남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와 소통 : 뉴스레터, 계간지 『마을독본』 발간 및 배포 • 조사와 분석 :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총6회) • 역량강화 :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상반기 상근자 직무연수 등 • 협력과 연대 : 시·군 센터장(사무국장) 정기회의(총 12회) 등
충남 도시재생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역량강화 : 코디네이터 역량강화교육, 뉴딜사업 컨설팅 및 평가지원, 정책이슈 세미나 등 •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 도시재생 홈페이지 리뉴얼 • 도시재생 모니터링 : 시·군 센터장 및 홍보담당자 간담회,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과정 맞춤형 컨설팅, 현장 기록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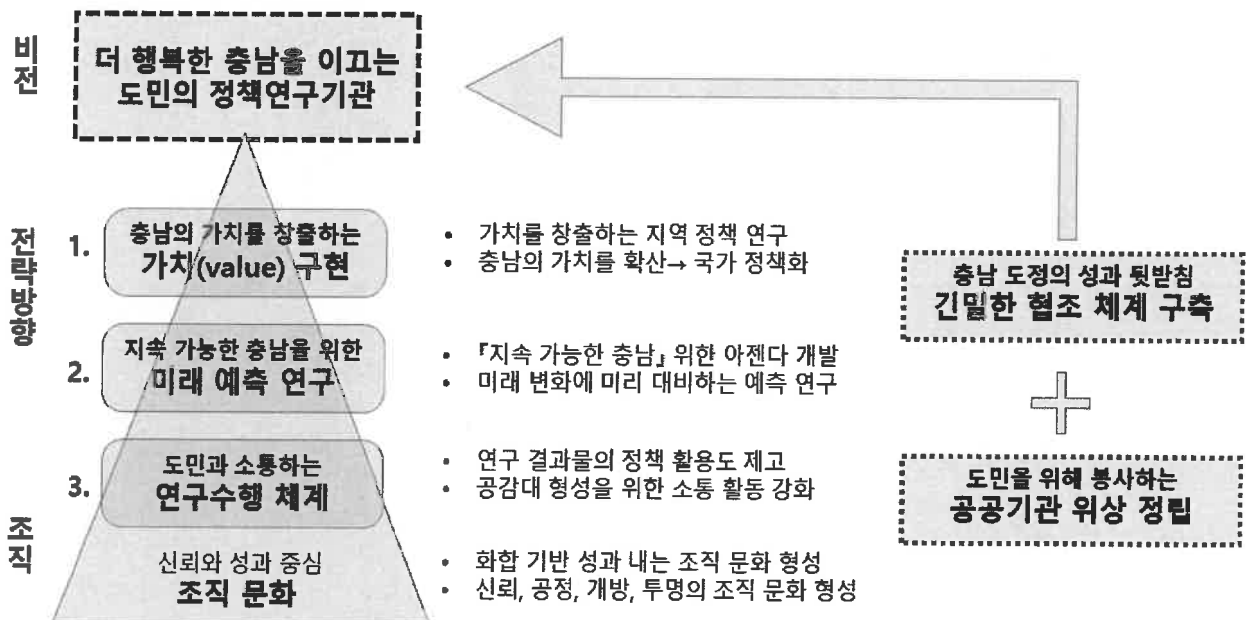
2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22년 여건 전망>

- (대내·외적 환경)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국가안보 차원의 보호무역주의 등 지역화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가치 형성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의 불확실성 확대
- (대선과 새정부 출범) 대선과 새정부 출범과정에서 충남의 가치 정립 및 충청권 주요 현안, 공공 의제에 대한 공론화 및 국가정책화 기회
- (민선8기 충남도정) 민선7기의 주요 아젠다에 대한 성과 확산과 민선8기 성공적 출범을 위한 미래예측에 기반한 아젠다 발굴과 연구수행체계 구축 필요
- (연구원 기능 확대) 도 및 시·군에 대한 연구원 역할 및 기능 확대

<2022년 중점 추진 전략>

- “더 행복한 충남을 이끄는 도민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역할 재정립



- 1 「충남의 가치」 발굴 및 국가정책화 추진
- 2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미래예측 연구
- 3 수요-공급자를 연계하는 「협력연구모형」구축
- 4 도정선도·창의 연구를 위한 연구원 운영방향 정립

3. 2022년 예산

제1조(예산규모) 2022년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명	수입,지출예산	비 고
기 금 회 계	14,517,853	원금 14,345,385 포함
일 반 회 계	11,272,112	일시차입한도액 3/100
특 별 회 계	10,060,263	

제2조(예산명세) 2022년도 수입지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수입지출예산"과 같다.

제3조(예산의 이월) 지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수입지출예산에 명시하여 익년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전용제한) 예산의 부문, 정책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단위, 세부사업간 전용은 원장의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잔액처리) 결산결과 결산잔액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직제규정 개정

① 개 정 이 유

○ 인권경영센터의 본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역할 조정

- 인권 침해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센터가 내부감사기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인권 기관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인권경영의 기능과 내부감사 기능의 분리로 목적에 맞는 역할 수행

- 당초 인권경영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추어 내부감사기능을 제외하고, 내부감사기능은 향후 재편하고자 함
- 인권 침해 상담, 구제 등 센터의 고유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재설정

② 주요 개정내용

○ 제4조의7 조항 일부 삭제

- 제4조의7(인권경영센터)의 담당 업무에서 '내부감사 기능'을 제외함

- 담당업무 중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외함

③ 직제규정 개정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7(인권경영센터)의 “인권경영센터는 인권경영에 맞춰 인권경영계획 및 평가, 인권교육, 인권침해상담 및 구제, 내부감사,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담당한다.”를 “인권경영센터는 인권경영에 맞춰 인권경영계획 및 평가, 인권교육, 인권침해상담 및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회의록 작성 날인

- 충남연구원 2021 제2차 정기이사회(2021.12.23)의 진행 및 의결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서명이사, 감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이를 증명함.

의 장 김 영 만

(인) 

이 사 류 주 현

(인) 

이 사 임 재 영

(인) 

감 사 이 창 규

(인) 